

전국 지역간 수단분담모형의 열차운행횟수 반영 방안

김희조*, 손형근*, 김현승**, 정동욱**, 원주희**, 이태구*** 박동주*[†]

초 특 4단계 방법을 사용한 여객철도수요 추정과정에서 사업시행효과 반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수단분담 단계이다. 현재 수단분담 단계에서는 통행시간, 통행비용을 주로 반영하고 있으나, 최근 변화하는 철도사업 여건에 따라 수단선택 기회 및 양적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열차운행횟수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횟수 및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버스운행횟수를 수집·정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. 수단분담모형에서 열차 및 버스의 운행횟수를 포함하였을 때, 모형이 지역간 수단분담률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연구 결과는 향후 노선계획,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서 철도공급량 설정에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† 교신저자: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&교통빅데이터융합학과(djpark@uos.ac.kr)

*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&교통빅데이터융합학과

**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 정책개발처 물류혁신부

*** 국가철도공단 미래전략연구원 정책개발처